학교체육시설 올해도 빗장 건다

도교육청 "신학기 안정 운영위해 미개방 연장"
학교운동장은 방과후·주말 지역주민 사용 가능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외부인 사용 금지가 연장된다. 외부 단체에 대한 미개방이 원칙으로, 실외 공간인 학교운동장의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방과후와 주말 지역 주민들의 개별 사용은 가능하다. 단,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학기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을 현재와 같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3월 새학년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외부단체는 주말 사용(대여)도 금지가 원칙인데, 만약 학교운동장이 개방될 경우 실내체육시설 개방 요구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학교체육시설 미개방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국가 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진행돼 올해 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당분간 개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대응 국가 위기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되거나 학생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뤄져 집단면역이 확보돼야 학교체육시설 개방 여부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인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며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지역주민과 동문회 등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금의 조치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시설 미개방 관련 사항'을 각급학교에 파급했다.

한편 도내 학교체육시설 현황은 체육관 160곳, 수영장 9곳, 운동장 191곳 등이다. 오은지기자

애처로운 갈매기의 눈빛 22일 제주시 애월항내 설치된 가두리에 갇힌 괭이갈매기들의 구조를 원하는 애절한 눈빛이 안타깝다. 강희만기자

전자발찌 찬 40대 초등생 강제추행 징역 7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도 제한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2)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9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해 공부방으로 향하던 A(9)양을 인근 골목길로 끌고가 추행했다.

고씨는 과거 두 차례 유사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0년 미성년자 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년 10월에 출소했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고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내용 및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성기자

제주대병원 제주최초 '환자용 앱' 오픈

진료 예약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비대면으로 처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병원 이용객들이 대면 접촉 없이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가 실시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병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대면 접촉 없이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 최초 환자용 앱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대학교병원 이용객들은 환자용 앱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자용 앱에서는 진료 예약 및 변경을 비롯 ▷일정 조회 및 확인 ▷처방약 조회 ▷진료내역 조회 ▷건강수첩 ▷진료비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자용 앱은 고객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대면 접촉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해 병원내 감염병 감염 위험을 줄이고 고객들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병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봄을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

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 관내 평균 선박 사고 발생 척수는 472척이다. 2018년에는 445척, 2019년에는 477척, 2020년에는 494척으로 3년간 총 1414척의 선박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사고는 ▷어선(69.1%) ▷레저보트(19.9%) ▷낚시어선(3.7%) ▷화물선(3.3%) ▷예·부선(0.9%)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42.4%) ▷운항부주의(34.4%) ▷관리소홀(9.1%) ▷기상악화(3.6%) 순으로 파악됐다. 강민성기자

원산지 거짓표시 단골품목은 배추김치·떡류

농관원 지난해 도내서 허위표시 53건 적발… "통신판매 신고 늘어"

값싼 수입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눈속임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얄팍한 상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나 중국산 재료로 만든 떡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해 식당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3건(거짓표시 34건, 미표시 19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9건에 과태료 69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은 전년(78건) 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현장 단속이 줄어들고, 명예감시원들의 활동 제약에 따른 영향이다.

거짓표시는 덴마크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판 것이 6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판 경우가 13건이다. 배추김치는 고춧가루와 배추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하는데,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속여팔다 적발된 식당과 유통업체들이 적잖았다.

또 떡류 적발은 7건으로 중국산 팥 앙금 등 원료를 국산으로 속여판 경우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와 IT 기술의 발달로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수입산 원료로 만든 오메기떡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중이다.

올들어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두부류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수입산 콩으로 만든 두부보다 값이 2~3배 비싼 점을 노리다 적발된 경우들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현장단속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건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통신판매업체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단속과 신고건에 대한 확인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보육원생 폭행 등 괴롭힌 10대 원생 2명 검찰 송치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 4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10대 학생 2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군과 B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보육원생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원생은 4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에 3~4번 꼴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담배를 피울 때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봐라"고 강요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 인근을 주먹으로 때리는 일명 '시큼이'를 수차례 하거나,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보육원생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폭행 등의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민성기자

"영리병원 조항 삭제 환영"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 관련 조항 삭제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제소송까지 비화될 조짐으로 가고 있다. 사업주인 중국녹지그룹은 소송전을 중단하고 영리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 물질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